

임채영 목사의 참 믿음의 여정

6강 온전함의 열매(3) : 화해

야고보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 묵상과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지역 갈등....그런데 이 갈등의 어원을 아시나요? 갈등(葛藤)은 칩 갈(葛)자와 등나무 등(藤)자가 합해진 말입니다. 칩과 등나무는 무성한 번식력을 가진 덩굴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곳에서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사진)....이 둘은 생태적 특성상 어떤 지지대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속성이 정반대입니다. 칩은 왼쪽 방향, 시계방향 반대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이 둘이 타고 올라가면서 감아 죄는 힘의 강도는 멀쩡한 나무의 성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서로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의 끝은 고사입니다. 서로 풀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죽어야 끝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1.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입니다(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싸움과 다툼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둘을 구분하는데요. 앞부분의 싸움은 중무장하고 싸우는 폭력적인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다툼은 언쟁, 즉 말로 하는 싸움입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싸움이 같이 있었어요. 문제는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가?...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입니다.

야고보는 그 원인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욕'은 '(헤도네, ἡδονή)'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헤도니즘(hedonism)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헤도니즘은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철학 학파를 가리키는 말의 어원입니다. 자기의 쾌락,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공동체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다툼이 커지는 이유를 보면 원인을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모든 싸움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해결되지 않고는 싸움은 그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욕심이 우리 마음의 수면 하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망은 교묘하게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욕심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해 놓으면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봉사라는 포장지 안에 인간적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

로는 개인적인 인기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공명심이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명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힙니다. 너무 일을 잘하려고 합니다. 왜 부딪힐까요? 과욕 때문입니다. 자기 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다툼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이 '욕심'은 우리의 믿음 안에 교묘하게, 그리고 은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2,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자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를 빼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에 대하여 야고보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야고보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세요. 2절 후반 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것은 아주 기본적인 등식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당연히 얻지도 못하지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설득이 대단하고 정성을 다 쏟아도 하나님은 욕망의 기도에 대해서는 냉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 사이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언약 관계로 서로에 대한 성실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적인 외침입니다. 그것은 뒤이어 나오는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코스모스 (κόσμος)’라는 말인데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 싫어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다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다고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 놓으신 씨앗들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세상 속에 심으셨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나의 욕심을 향한 마음.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서 나뉘었어요.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면 큰일 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지고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하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다 보니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큰소리로 했는데, 구체적인 열매가 없어요.

3.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

5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바로 그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머물게 하셨는데 그 영을 질투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분 이외는 다른 어느 신들도 섬겨서는 안 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당신만을 섬기도록 요청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는데, 그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호세아 아시죠?...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짝하여 사랑에 빠진 간음하는 아내....두 마음...그리고 그 집 나간 아내를 향하여 질투하며, 다시 되찾아오고자 하는 속이 타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우리는 한눈을 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정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은혜입니다....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욕심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것이 있어요. 성숙이 없어요. 언제나 제자리예요. 나갔다가 돌아오고, 또다시 나가고....그럼에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야고보는 더 큰 은혜를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가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더 큰 은혜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그분 앞에 낮출 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므로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이 될 때, 받게 되는 은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깊은 은혜....그런데 이 은혜에는 조건이 있어요....그 대답으로서 잠언 3:34을 인용합니다....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겸손이에요. 7절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종이란....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엎드림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함으로 한마음이 되는 것....지금까지 야고보가 제기하는 문제는 두 마음....흠어진 마음....세상을 향한 욕심.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오해. 교만한 마음....겸손은 이런 두 마음을 한마음으로....이 두마음을 해결하려면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마귀가 나올까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에게 맨날 지고 깨져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마귀를 이기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가는....더 큰 은혜....욕심으로 나뉘어진 '두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나누어진 두 마음을 서로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붙들어 끌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4.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거울 속의 나와 나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내가 거울에 가까이 갈수록 거울 속의 내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도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멋지지 않나요?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례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죄인들을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헬라어는 ‘디아크리노(διακρίνω)’입니다. ‘디아’(사이에)와 ‘크리노’(분리시키다)의 합성어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1:8에서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표현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까이하려고 하는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없으니까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게 됩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잠심>이라고....잠심은 잠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 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잠심’의 반대는 ‘분심(分心)’입니다. 분심은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으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분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쁘고 분주할수록 잠심을 배워야 합니다. 잠잠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5. 이 성결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깨끗했던 우리 마음에도 그늘음이 앉게 마련입니다. 욕심, 이기심, 시기심, 파당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투명한 존재가 되어 갑니다....시인 윤동주는 그의 <참회록>에서...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비쳐진 자기 모습을 부끄럽게 돌아보다가, 마침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고 다짐합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라도 닦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절박함.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대충 살면서도 그게 목에 박힌 가시처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닦아보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또다시 저 깊은 곳에서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도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롬 7:24)라고 탄식한 것은 이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닦는다고 없어질 욕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부도덕한 종교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도덕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독교의 수준은 도덕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독교와 도덕이 비슷한 것으로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을 잘 닦고 닦아서 좀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으시던가요?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아예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욕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강력한 주인이 필요합니다.... 계시

룩 3:20을 보세요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겁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전히 주인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끌어 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삶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초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들, 허물과 질병, 미움과 질투의 교차로를 달리면서 생의 목적지도 모른 채 황급하게 내달리기만 하려 하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삶의 운전석을 내어 드려보세요. 그리고 열려지는 더 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침반 바이블
BIBLE